

고흥군, 지난해에 이어 전국 1위 장수 고장 입증!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한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비전 실현



고흥군청 전경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전국 1위 장수 고장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20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흥군의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노인은 91.8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고흥군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2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460명의 어르신에게 대기 자 없는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관내 목욕탕·이미용업소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간 6만 원 상당의 '청춘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흥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다.

보성, 능선 따라 넘실대는 초록 물결 ... 여름 보성차밭

20일 산비탈과 능선을 따라 가자런히 이어진 차나무가 굽이굽이 초록빛 물결을 이루며 보성만의 싱그러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전국 최대 차 산지로, 해양성과 대륙성 기후가 교차하는 자연환경과 풍부한 강수량, 배수성이 뛰어난 토양을 바탕으로 연간 약 5,000~6,000톤의 차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짙어진 녹음과 함께 차밭의 아름다운 경관이 더욱 돋보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성의 차밭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차 산업의 기반으로,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푸른 차밭이 산비탈과 능선을 따라 펼쳐져 한여름에도 싱그러운 풍경을 자아내며 보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해남 땅끝순례문학관 '황지우 시인과 명작읽기' 운영

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의 화제의 강의 '황지우 시인과 함께하는 특별 인문강좌, 주경야독: 황지우 시인과 함께하는 명작읽기4'가 오는 9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백련재 문학의 집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주경야독'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는 뜻처럼, 일과를 마친 저녁 황지우 시인과 함께 세계의 고전 명작을 깊이 있게 읽어가는 땅끝순례문학관의 대표 인문강좌다. 2024년 고대 그리스 명작읽기로 출발해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문학을 중심으로 철학·역사·사회·미술을 넘나드는 깊이 있는 강의로 해남뿐 아니라 서울, 세종, 여수 등 외지에서도 수강생들이 찾아오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중세부터 근대까지 사상과 예술의 흐름을 살펴본다. 『돈키호테』, 『헝리』, 『군주론』 등 총 12강을 통해 철학·역사·사회·미술을 아우르며 '근대성'의 기원을 찾아간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민속예술·관광 잇는 정책포럼 개최

진도군과 진도군문화도시센터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도 민속예술 관광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문화도시 진도가 보유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다양한 민속예술의 가치를 관광과 연계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대학 교수, 여행업계 관계자, 언론인 등 (사)국제관광인포럼 회원들이 참여해 진도 민속예술의 관광상품화 가능성과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진도군과 국제관광인포럼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화도시 진도의 문화·관광자원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가영 기자

장흥,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

장흥군이 지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분야 특별상을 수상하며 지역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장흥군은 지역의 산업·인구·고용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신중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 연계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체계적인 추진 및 성과관리 등 지역의 고용 여건에 맞춘 정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 추진에 그치지 않고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직접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했다.

/김정근 기자

완도소방서, 전국기계제조대회 대비 대회·숙박시설 안전점검 실시

대회시설·숙박시설 소방안전점검 실시...피난동선·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 집중 확인



대회시설 및 숙박시설 안전점검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소방서(서장 박보영)는 제5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기계제조대회를 앞두고 대회 참가 선수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대회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완도에서 열리는 전국 기계제조대회와 관련해 참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회가 진행되는 완도청해진스포츠클러스를 비롯해 참가 선수들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이다.

완도소방서는 대회시설에 대해 ▲소방시설 완비 및 정상 작동 여부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 확인 여부 ▲시설 내·외부 소방안전관리

상태 ▲소방차 진입 및 소방활동 여건 ▲시설 주변 및 차량 이동 동선의 안전성 ▲2층 이상 시설의 완강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 학생 숙소에 대해서는 ▲객실 배치도 및 출입구·대피로 확보 여부 ▲숙소 주변 위험요인 ▲객실 내 화기 및 전기시설 관리 상태 ▲객실당 적정 투숙인원 ▲계단 및 난간 안전상태 ▲유리창 안전잠금장치 작동 여부 ▲완강기 설치 및 작동 여부 ▲소화기 비치 및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점검했다.

대회 참가 학생들이 단체 이동·숙박하는 만큼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피난동선과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